

함글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74

2017. 2. 12

2017년 주님의교회 포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
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_시 62:6

오늘의 주요기사

- 2 선교이야기
- 3 중고등부 수련회
- 4 2017 제직부서 소개
- 5 목회칼럼
- 6 알립니다

교회 일정

2/24(금)~25(토)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2/28(화) 예친사 개강
3/5(주일) 성찬주일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글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밤 새 눈이 내린 주말, 정신학원 운동장에서 차량이 한창 제설작업 중이다.

봄이 멀지 않다

입춘 앞두고 내린 눈이 정신학원 운동장에 가득하다. 제설차가 눈을 치워야 마른 땅 봄벌에 따뜻하게 마를 터이다. 그러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하였듯, 눈을 치운들 진정한 봄이 올 것인지 알기 어렵다. 월력으로는 봄이 멀지 않으나, 때 아닌 검은 구름과 찬바람과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무시로 이 땅에 가득하니,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웁고 그림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애급의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족속에게 낮의 구름기둥, 밤의 불기둥으로 나타나셨던 여호와 주님뿐일 터이다. 성경

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아모스 5:9~10)고 하셨다.

또한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름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아모

스 5:11~12)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셨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2~24)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라도 웁고 그림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에 두지 못한 죄를 자복해야 할 것이다. 그날에야 비로소 이 땅을 가득 채울,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진정한 봄을 기다린다.

함글함울

총회소식

통합-합동, 종교개혁 500주년 사업 함께 추진

주님의교회 소속 교단의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이 2017년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추진을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또한 분열 이후 처음으로 두 교단 산하 총회 임원, 노회장, 신학교 총

장이 함께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교단의 총회 임원들은 지난 8일 간담회를 갖고 교단 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는 세미나를 개최기로 했으며, 10월에 열릴 한국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

회 준비도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양 교단은 이미 2008년 제주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총회 개회예배를 장로교 4개 교단 연합예배로 함께 드린 적이 있으며, 2014년엔 한국교회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한 바 있

다고 한다. 이 날 간담회에서 합동 총회장의 연합과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설교에 본교단 이성희 총회장은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연합함으로 한국교회의 하나된 모습을 사회에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함줄함울

선교이야기 2

선교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난다

예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된 예배의 핵심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릴 영광을 생각하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온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모든 만물에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데 온 땅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자신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계시하신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96편은 영광의 이러한 원심적, 구심적 두 방향을 보여준다. 원심적 방향으로, 하나님은 2-3절에서 열방에게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명

하신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 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 지어다’ 이 말씀은 세계 복음화에 대해 잘 표현해주고 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세계 복음화의 목적을 말해준다. 7-9절에 나온 대로 열방으로 부터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 지어다.(중략)’ 이 같은 영광의 놀라운 질서에서 선교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영광의 구심적 방향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시려고 열방에게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결국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게 선포하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열방이 예배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드라마이다.

선교의 목적

이처럼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이 세대가 끝나고 셀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앉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동력원이자 목표가 되는데 그것이 목표인 이유는 우리가 선교할 때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게 되고 민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 지어다’(시97:1)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

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시 67:3-4).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면 먼저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을 제시해야 한다. 마음속 깊이 신봉하지 않는 것을 찬미할 수는 없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주를 기뻐하라고 마음 깊이 말하지 못한다면 결코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고 선포할 수 없을 것이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난다.

(참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퍼스펙티브스, 스티븐 호돈/‘열방이 기뻐하게 하라’, 퍼스펙티브스, 존 파이퍼)

해외선교팀

>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해외선교팀의 제공으로 12회에 걸쳐 선교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98

無酵餅(무교병, unleavened bread)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출애굽기 12장 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빔월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빔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8절)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다. 누룩이 없는 것은 분별됨 또는 거룩함의 표지

였다. 참고로 무교전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燂鐵(번철)에 지진 떡을 가리킨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애굽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출애굽의 은혜를 통한 새롭고 거룩한 생활을 상징한다. 쓴 나물과 함께 매우 긴박하게 진행된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이요 유월절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음식이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無(없을 무): 人(사람 인)의 변형체 “ㄴ”와 장작을 쌓은 모양 “𠂔” 밑에 火(불 화)의 변형체 “灬”(연화 발)을 조합

하여【사람이 쌓여진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니 타 없어진다】는 글자를 만들었다.

★酵(술 익을 효, 교): “술 또는 술독”을 뜻하는 酉(닭 유)와 “효도 또는 보모”의 뜻이 있는 孝(효도 효)를 합쳐【술독에든 술을 보모가 아기 돌보듯 따듯이 감싸니 익는다】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餅(떡 병): “밥 또는 먹는다”는 뜻이 있는 食(밥 사. 먹을 식)에 “방패를 줄지어 세운 모양의” 并(나란할 병)을 합쳐【밥을 찢어 같은 모양으로 나란하게 만든 음식이 떡이다】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39



우리들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있다면 이제 그 두 손을 활짝 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들의 작은 사랑을 설 연휴 전날,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우께 머리를 감겨드린 섬김의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수련회 간증

내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번 비발디 수련회는 제 꿈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수련회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요셉 전도사님, 나도움 목사님, 오선화님, 김영광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이 정말 물 흐르듯이 이어졌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조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내 나름의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에서 정말 감사했던 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알기위해서 몸부림치는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부끄러웠습니다. 예배 팀으로 매주 서면서, 예배의 시작을 담당하면서, 그동안 나 자신이 너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웠고, 앞에 무대에 서서 했던 것들이 쇼맨십으로 했던 것 같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제 닫힌 마음 열어주세요' 어찌나 닫

혀있었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죄를 지은 게 너무도 많이 스쳐 지나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제 머릿속에 찬양가사 하나가 싹 떠올랐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 가사가 머리에 지나가는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

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제 맘에 쌓였던 것들을 풀어내던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그 조그마한 힌트를 주심에 너무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제 마음을 바로 잡았고, 새롭게 알게 된 친구들 은혜주심에 감사했던 수련회였습니다. 벌써부터 여름수련회가 기대가 되네요. 그때는 더 많은 친구들과 후배, 선배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고등부

청소년

중, 고등부 동계 수련회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방학동안 열렸다. 중등부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파주 솔수양관에서 '거룩을 향한 발걸음-start' 라는 주제로 학생 85

명과 40명의 교사들이 참석을 하였다. 고등부는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가평 아가페타운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학생

86명과 37명의 교사들이 참석을 하였다. 학기 중에 집중하기 쉽지 않았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모처럼 교회

친구들과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함글함글



기도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2017년 첫 새벽헌신자 모임이 2월 4일 (토) 오전 6:15분에 제 3집회실에서 40여명의 새벽기도 헌신자들이 모여 김 대한 목사의 인도로 말씀을 듣고,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으로 인

도해 주시기를 기도 속에 담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증인의 삶 살아가기를 중보 했다. 새벽기도 헌신자 모임은 매달 첫 토요일 새벽에 모여 많은 새벽기도 헌신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한다.

함글함글



기도회

군, 경입대 자녀를 위한 부모기도회

군,경입대 자녀를 위한 부모기도회가 1월 24일(화) 제 1집회실에서 군에 입대한 자녀가 있는 부모와 군선교팀 사역자들이 모여서 예배와 함께 열렸다. 기도회를 통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동시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이 된다. 혹독한 추위에도 전, 후방 각 부대에서 복부중인 자녀들의 건강과 대한민국 군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를 갖는다. 군,경 입대자녀를 위한 기도회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다.

함글함글



2017년 제직부서 소개

1.목양위원회

예배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예배1부	이종만	6 새벽기도	손영익
2 예배2부	김낙균	7 세 레	나관주
3 안내1부	박석영	8 통 역	최영재
4 안내2부	노환옥	9 중보기도	김경미
5 성 찬	오선희	10 할렐루야찬양대	최미현

음악 분과위원회

부서	대장	부서	대장
1 음악지원부	장순옥	5 임마누엘 찬양대	박치현
2 호산나 찬양대	이승원	6 미시오데이찬양대	조병길
3 시온 찬양대	안성봉	7 주오오케스트라	안정수
4 샬롬 찬양대	김하방		

소그룹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교구행정부	조유경	3 거자씨양육부	서재화
2 소그룹지원부	목기숙	4 은사사역부	전숙정

젊은이(10교구)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행정	임익수	3 사역	박서경
2 중보지원	설정희	4	

양육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새가족	김병연	3 양육클래스	방순희
2 가정사역	김명훈	4 피택자교육	목기숙

미디어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출판홍보	신형섭	2 함줄함울	장경식

2.교육위원회

어린이 분과위원회

부서	부장 / 지도권사	부서	부장 / 지도권사
1 하임(아기부)	김희숙 / 김혜숙	10 햇살뜨락(초등1부)	서금란 / 이영란
2 하늘씨앗 / 영어1부	최우철 / 이미화	11 햇살뜨락(초등2부)	강응순 / 김현희
3 하늘씨앗 / 영어2부	최호성 / 김가남	12 아롬드리(소년1부)	정종기 / 목기숙
4 싹트네 / 유아1부	최정윤 / 오점덕	13 아롬드리(소년2부)	전선재 / 이은순
5 싹트네 / 유아2부	남현숙 / 김원미	14 아가정원	강은주 / 전진희
6 담쟁이 / 유치1부	이동명 / 정란희	어와나 (커비,볼티,티앤티)	임연옥
7 담쟁이 / 유치2부	유혜경 / 이봉순		임창남 박문숙
8 포도나무 / 유년1부	정성권 / 오미혜		윤현숙
9 포도나무 / 유년2부	김천식 / 신명식	18 교육자원1부	이상래 / 문유숙

청소년 분과위원회

부서	부장 / 지도권사	부서	부장 / 지도권사
1 교육지원2부	손태향	3 비전트리 고등부	김익환/홍기현
2 팝콘트리 중등부	정상철 / 최미현		

청년 분과위원회

부서	부장 / 지도권사	부서	부장 / 지도권사
1 청년사역지원부	이현식 / 강정여	3 청년2부	김광일/강희정
2 청년1부	서정하 / 김영례		

EM 분과위원회

부서	부장 / 지도권사	부서	부장 / 지도권사
1 영어예배부	김은성	3 한국어교실	이재덕
2 어린이영어예배부	최영순		

3.섬김위원회

봉사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주방부	유마노	5 도서실	이제원
2 봉사부	이송도	6 환경미화	탁동원
3 주차안내부	노대홍	7 설만한물가	이은우
4 서점	이성욱	8 결혼예식	유순의

복지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복지사역지원부	김두용	6 사랑나무	탁준한
2 구제부	이문영	7 장애인사역	김용철
3 꿈나무	권이홍	8 전화상담	김미자
4 환경사역		9 호스피스	소봉순
5 복지	천인성		

국내선교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국내선교지원부	황남호	6 법조지원부	신종범
2 군경선교부	이성훈	7 의료선교부	박준명
3 서부선교부	홍운식	8 주한외국인선교부	박진현
4 동부선교부	이원철	9 이미용	유현자
5 기관선교부	임정식		

문화 스포츠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팀)	부서장
1 미술	김현주	5 사진부	이혜선
2 성극	손경숙	6 문화선교지원부	이재현
3 스포츠선교	하태원	7 호산나무용	이혜숙
4 유소년축구선교부	태재승		

통일선교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팀)	부서장
1 통일선교지원부	김경희	3 북한이탈주민지원	신성철
2 하나원부	구태호	4 대외활동지원부	이병직

해외선교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부서(팀)	부서장
1 해외선교지원부	김용규	5 중앙아시아	이재홍
2 선교기도부	변춘석	6 미주	정준호
3 비전트립지원부	박석진	7 유럽	노환옥
4 동남아시아	이상선	8 아프리카	안경희

4.국제교육선교센터

국제교육선교센터 운영팀

부서	부서장
1 센터운영	윤성진

교육선교연구소

부서	부서장
1 연구	홍완식

예수친구사역원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예친사지원부	민병준	3 신앙훈련	임익수
2 사역훈련	신영숙		

12단계성경연구원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성경연구지원부	최영인	3 안내준비	
2 인터넷	김낙균		

청소년사역원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청소년사역원	이광실	3 반가운학교	이은영
2 학원선교	정승아	4 청소년문화	박정은

5.(사)섬김과나눔

(사)섬김과나눔

부서	부서장
1 사무국운영	안광희

늘푸른대학(어르신대학)

부서	부서장
1 늘푸른대학운영	권성호

무료급식

부서	부서장
1 화요팀	조병길
2 수요일	신형섭

어르신 생활지원

부서	부서장
1 월요일	소봉순
2 목요일	곽병남

불우이웃 특별구제

부서	부서장
1 특별구제	신성식

사회복지시설(기관) 위탁 운영

부서	부서장	부서	부서장
1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연진	3 송파구가락본동 어린이집	윤영란
2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박연진	4 송파교육복지센터	박은경

목회칼럼

청년이 없는 교회는 희망도 없다

한국교회의 장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젊은이들의 격감입니다. 20-30세 사이의 청년들의 수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과거 우리는 어린이도, 청소년도 없는 노인들만 드문드문 앉아 있는 서구 교회의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방송 작가이자 '회복'이란 영화의 감독인 김종철은 『청년이 없는 교회는 희망도 없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영혼이 썩은 민족은 분명 패망을 앞둔 민족이고, 청년이 없는 교회는 기동도 없는 지붕만 요란스럽게 장식되어 있는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4만의 교회와 2만 4천의 목사 그리고 천만 명이라고 하는 성도의 숫자, 과연 그 속에서 청년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오늘 우리는 한 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청년들에게 드리는 말씀

청년들에게는 이런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의 때는 결단의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결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망설임 없이 배와 그물 그리고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청년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청년 때 돌아와야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청년 시절이니 훈련받기를 주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의 때는 힘과 열정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을 세상의 생명으로 부르신 이유는 힘이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잠20:29에서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화'는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이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것은 그의 힘입니다. 그의 힘을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는 것에 기꺼이 사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년 시기는 열정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또 깊이 있게 공부하고 기도를 통해 리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니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의 때는 비전을 따라 사는 시기입니다. 어른이 되고 가족을 책임지게 되면 꿈보단 현실이 더 무거워 비전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비전을 따라 살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에스더처럼 주님을 향한 비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장년들에게 드리는 말씀

그렇다면 신앙의 선배들인 주님의교

회 성도들은 어떻게 청년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관용을 베풀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4:5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란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남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 '자기 입장을 완고하게 지탱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하워드 헨드릭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설교 시간 중 히피 청년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예배당 제일 앞쪽 마룻바닥에 털썩하고 앉았습니다. 청년의 바지는 여기저기 찢겨져 있고, 머리는 길어 턱이 되어 있고, 남루합니다. 신발까지 툇 벗어 옆에 놓습니다. 그러니 예배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늘합니다. 마치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 청년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수석장로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곤 그 청년에게로 가더니, 웃옷을 벗고, 넥타이를 푸르고, 그 청년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그 옆에 놓습니다.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지적하기보다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믿음의 본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을 사랑하는 성도는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 못할 때, 청년들은 롤 모델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선배 된 우리들

이 더욱 믿음의 본을 보여 준다면 청년들이 그 모습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애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청년들은 자기의 세계에만 몰두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가정을 꾸며야 할 것인가?' 청년들은 갈수록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 향락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ilerse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함락당하고 맙니다. 이 세상이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채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청년을 위해, 한국 교회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 같은 청년, 기드온 같은 청년, 다니엘 같은 청년, 바울 같은 청년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은 십자가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고 나라 구석구석으로,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아가야 할 복음의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청년들을 세우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청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희삼 목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40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19)

정신여학교 유지 청원



정신여학교 구명운동. 1938년 6월 30일 동아일보

1938년 6월 24일, 정신여학교 이사과 경성노회는 한국선교부에 미 북장로회가 정신여학교 교육철수를 철회해 줄 것과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경성노회에 인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정신여학교 학부형과 동창회에서는 그동안 거대한 업적과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정신여학교를 그대로 없애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므로 동교의 건물, 기지만을 인계 시켜준다면 인수하겠다고 뜻을 표하였다. 6월 29일, 경성

노회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정신여학교를 맡기로 결정하고 미북장로회 한국선교부에 이 뜻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7월 4일, 한국선교부 실행위원장 로즈(Harry A. Rhodes, 노해리)가 경성노회장 오건영 앞으로 경성노회가 정신여학교를 맡는 것을 거절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7월 12일, 한국선교부 실행위원회, 학교 폐교수속에 대한 경비는 해당지역 선교사 재산으로 충당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정신여학교

설립자 언더우드는 학교를 조선인에게 넘기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 정신여학교 루이스 교장은 스스로 사임했다. 미북장로회 선교부는 철수한 학교에서는 어떤 선교사도 학교의 통제하는 지위, 행정 또는 전임 교육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학교를 한국인 측에 인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인 자신이 학교에 남아 있으면 안 되었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아기나들이



최윤하 아기

2016년 8월 24일생

1. 사랑받고 더 베풀 줄 아는 따뜻한 아이로 자라게
2. 올바르고 건강한 꿈을 실천하는 아이가 되게
3. 하고자 하는 일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이고,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아이가 되게

아빠 최원석 / 엄마 백정원, 2017년 1월 22일 2부 예배

섬김과 나눔

신생아 사랑의 털모자 전달

2016년에 전교인이 참여하여 만든 희망과 사랑과 생명의 신생아 털모자 1200개를 1월 17일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전달하였다. 모자를 만들며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전달한 귀한 시간들.. 우리들에게는 작은 시간들이었지만 하나의 작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들을 통해 성령의 자리에 함께한 시간들에 감사를 했으며 열심히 만든 작은 모자들로 사랑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길 바랐다. 전달한 모자는 아프리카 우간다와 중앙 아시아 타지키스탄으로 전달되어지며 (사) 섬김과 나눔에서는 2017년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함즐함울



2017년 제직수련회

1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친 후 대예배실에서 제직수련회가 열렸다. 2017년도 제직부서 소개와 김명용교수(장신대 전총장)의 말씀으로 진행되었다. 위원회별 소개와 찬양대 소개, 교육목회원 교역자와 교사 소개 및 담당 교역자 소개를 하였다. 함즐함울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즐함울,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 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단상 형식의 글을 보내주십시오. 신문에 기고를 원하시는 분은 메일 계정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원고는 함즐함울 편집부에서 회의를 거쳐 기고를 결정하며, 내용이 편집될 수 있습니다.

늘푸른대학에 오시면
건강강좌 / 실용 / 연주회 / 영화 /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17 늘푸른대학 제9기
학생모집

입학 안내

- 대상 : 만65세 이상 교인 및 지역주민
- 정원 : 270명 (선착순)
- 등록일자 : 2017. 2.19-26 (2주간)
- 등록장소 : 주님의교회 / 1층 로비 접수처
- 등록금 : 6만 원 (1년)

특별활동반
(14개 반)

- ▶ 찬양대 반
- ▶ 고사성어 반
- ▶ 노래교실 반
- ▶ 뜨개질 반
- ▶ 바둑 반
- ▶ 사군자 반
- ▶ 서예성경필사 반
- ▶ 생활체조 반
- ▶ 스포츠댄스 반
- ▶ 시니어에어로빅 반
- ▶ 연필스케치 반
- ▶ 탁구 반
- ▶ 통기타 반
- ▶ 하모니카 반



개강 : 2017. 3.7 (화)

오전 10:30 / 중예배실

주님의교회 부설 (사) 섬김과 나눔 / 늘푸른대학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5-5113 (문의 : 교무처장 / 권성호 안수집사 010-3726-1444)

알립니다

1.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일시 : 2/24(금)~25(토) 오후 6:00 중예배실(지하)

대상 : 겨자목, 겨자체, 겨자씨 인도자, 권찰

강사 : 김형석 교수, 정재찬 교수

2. 입교 및 세례 교육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교육 : 3/5~4/25(주일) 오후 1:30~3:00 초등부실(3층)

문의 : 나관주 안수집사 / 접수 : 안내데스크(1층)

* 입교세례예식 : 4/9(주일) 3부 예배시

3. 2017 상반기 주님의교회 대내외 장학금 신청안내

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접수 : 2/15(수)까지(월요일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접수처 : 교회사무실(1층) / 문의 : 최명철 안수집사

* 자세한 사항은 교회 내 광고포스터 및 홈페이지 참조

4. 베트남어 기초반 수강생 모집

일시 : 3/4~5/6(10주) 매주 토요일 오후 5:00~6:30

접수처 및 교재 : 로비(1층) '입에서 톡 베트남어'

강사 : 이강우 교수 / 문의 : 이상선 안수집사

5. 정기당회

2/19(주일) 오후 4시 대회의실(4층)